

‘기생충’, 칸 국제영화제 최고 영예 ‘황금종려상’…한국영화 사상 첫 수상

봉준호, 한국영화 100년 새 역사 열다



‘영광의 두 얼굴!’ 26일(한국시간) 한국영화 최초로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의 주역 봉준호 감독(왼쪽)과 송강호가 공식 포토콜에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트로피를 내보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칸(프랑스) | AP·뉴스시스



이해리 기자의 여기는 칸

칸(프랑스) | golf1024@donga.com

심사위원 9명 만장일치…경쟁작 20편 제쳐
심사위원장 “빈부양극화 유머러스하게 담아”
봉 감독 “함께 해준 위대한 배우들에게 감사”
문재인 대통령 “꿈 이룬 봉 감독 자랑스럽다”



1919년 ‘의리적 구토’ 이후
100년, 한국영화가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 26일 오전(이하 한
국시간) 막을 내린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
화 최초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제작 바른손이앤
에이)이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거머쥐면서다.
봉 감독과 주연 송강호는 이날 프랑스 칸의 뤼미
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영화제 폐막식에서 황금종려

상을 안았다. 봉 감독은 ‘기생충’이 “큰 영화적 모험
이었다”면서 “독특하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싶었
다”며 스태프와 “함께해준 위대한 배우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송강호는 “인내심과 슬기로움과
열정을 가르쳐준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들
께 영광을 바치겠다”며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기생충’은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
등 경쟁부문 심사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수상의 영
광을 안았다. 켄 로치의 ‘소리 위 미스드 유’, 장 피
에르·뤼크 다르텐의 ‘영 아메드’ 등 거장들의 신작
등 20편과 경쟁했다. 가난한 집안과 부자집 가족 이
아기를 통해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를 그려 극찬
을 받아왔다.

이냐리투 감독은 ‘기생충’이 “심사위원단의 마음
을 사로잡았다. 전 지구적 삶과 연관 있는 이야기를
재미있고 유머러스하게 그렸다”고 평가했다. 전찬
일 영화평론가는 “‘버드맨’과 ‘레버넌트:죽음에서
돌아온 자’로 아카데미 감독상 등을 수상한 이냐리
투 감독이 심사위원장인 점이 주효했다”며 “그처럼

봉 감독도 개인의 드라마로 사회적 공기를 불러일으
킨다”고 짚었다.

‘기생충’은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각본상) 이
후 9년 만의 칸 국제영화제 본상 수상 성과다.
2013년 문병고 감독의 ‘세이프’가 단편 경쟁부문 황
금종려상을 받은 뒤 한국영화가 세계 최고 권위 무
대에서 다시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또 지난해 일
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에 이어 아
시아영화가 2년 연속 최고 영예를 안았다.

영화계는 이를 100년의 한국영화가 이제 새로운
길에 들어섰음을 선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봉준호 감독은 “우리 역사에는 위대한 감독들이 있
다”면서 “한국의 마스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매우 영예로
운 일”이라면서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리며 열
두살 시절부터 꿈 꿔온 차곡차곡 쌓아 세계적인 감
독으로 우뚝 선 봉준호라는 이름이 자랑스럽다”며
봉 감독의 수상을 축하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봉 감독과 통화해 축하를 전했다.

한편 이번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은 마티 다음 감독
의 ‘아틀란티크’, 남녀주연상은 ‘페인 앤 글로리’의 안
토니오 반테라스와 ‘리틀 조’의 에밀리 비샴, 감독상은
장 피에르·뤼크 다르텐 형제 감독이 각각 수상했다.

▶ 관련기사 2·3면



황금종려상 칸 국제영화제가 경쟁부문

초청작 가운데 최고 작품과 그 감독에게
주는 상.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의 상징인 아
열대식물 종려나무에서 이름을 따왔다. 트로피
에 새겨진 로고의 잎사귀 형상도 종려나무를 본
뜬 것이다. 1975년 칸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가 기존의 그랑프리를 개칭해 수여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황금곰상), 이탈리아 베니스(황금
사자상) 국제영화제도 칸처럼 별도의 최고상 명
칭을 쓰고 있다.

시즌 7승에 결승타까지, 복치고 장구 친 류현진 ▶4면

‘사팔라’ 아저씨 김영철이 다시 뜨는 이유 ▶13면

CJ CHEILJEDANG

(09~16년, 식약처 생산실적 중 자사 전립소 브랜드 생산실적 기준)

대한민국 1등!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셀레늄 추가로 항산화까지!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특가 프로모션!
전화주문 시
4개월 분 구성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 : 대한민국 | 쏘팔메토 열매추출물(미국산), 간조효소(한국산) | 무연료 | 포도씨오일(스페인산)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남자들의 고민! 전립선.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로 당신의 활력과 자신감을 찾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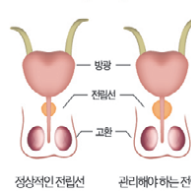
소변고민, 떨어진 자신감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를
추천합니다

- ✓ 잠을 자다 소변을 보기 위해서 깨십니까?
- ✓ 배뇨 후 2시간 이내 다시 소변을 보십니까?
- ✓ 배뇨 후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 ✓ 소변줄기가 자주 끊어지고 약하십니까?
- ✓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어려우십니까?

(제품정보와는 상관없는 건강정보입니다)

소변문제, 전립선 때문인걸 아세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방광 크기의
생식기(문)로서 중년이 되면 남성호르몬의 변화로
사과만큼 크기까지 커져 방광과 요도를 압박하여
여러가지 소변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살의 질을 저하시키고 남성의 자신감까지 잃게 하는
전립선 고민! 더 이상 슬기지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루빨리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J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가 선택한
쏘팔메토 열매추출물! 체크하세요!
-미국 FDA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발렌사사의 USPLUS 프리미엄 원료만 사용!
-세계적인 식품 안전 기준인 할랄 코서 인증까지!

소변을 시원하게! 셀레늄 추가로 항산화까지!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700명 대상 인체시험을 통해 기능성 원료인
쏘팔메토 열매추출물의 항산화·항염증 효과 입증
-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셀레늄 추가!
항산화 효소가 풍부하여 체내 세포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비타민 B1, B2, B6, B12 함유로 남성의 에너지와 활력 충전까지
- 중년 남성의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세포분열에 꼭 필요한 아연 함유



KISA

USPLUS 고품질 전립소 쏘팔메토 파워는
전화로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722-9988

발렌사사(USPLUS)는 미국 FDA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발렌사사의 USPLUS 프리미엄 원료만 사용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식품 안전 기준인 할랄 코서 인증까지!